

전남 교육 소식



“우리 학교에 무지개가 떴어요”

영암삼호중양초, 다문화 가족캠프

삼호중양초등학교(교장 장성호)는 지난 5월 26일~27일 이틀간 영암초와 무안초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다문화 가족캠프 공동사업 ‘무지개가 떴다’ 프로그램을 현대호텔에서 진행했다.

학교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다문화 가정 8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생각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나를 알아보고 가족을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간들 속에서 가족 애틋하게 느끼기에 충분했다.

원민주이동중소년발달센터 원민주 선생님은 가족 소통 방법을 돕고 표현해보는 데크레이션과, 가족 협동화 그리기, 미술 배워보기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다른 가족을 들여다보고 나의 가족의 소중한 단거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였으며 공방체험을 통해 식탁위에 맛있는 음식을 담은 가족 그릇을 만드는 시간도 병행했다. 이날 진행되는 비용은 현대삼호중공업 사주들의 기부와 현대호텔의 지원이 있었기에 적은 비용으로 현대호텔 숙박과 식사로 가족들을 설거지 할 수 있었다.

참가했던 2학년 윤모 학생은 “가족끼리 편지 쓰고 읽어주는 미션 수행에 이런 글귀를 남겼다. ‘가족이 행복하게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었다’ 라는 편지를 나에게 읽어주며 행복했다”고 말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학교와 가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세워 가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영 기자 idy@

합평고, 자전거길 국토종주 중

삼전강중주코스 달려

합평고등학교는 지난 5월 28일 2017년 합평교육지원청 다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려라 희망길!’이란 주제로 합평고등학교 삼전강 자전거길 대대적이 개최했다.

이번 삼전강길 자전거 중주는 재학생 11명과 인솔교사(김종호, 송현범, 양정열, 박우) 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중주팀이 ‘달려라 희망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2박 3일간의 일정을 진행했다. 이들은 순창 삼전강 체육공원을 출발하여 광양 배알도 해변공원까지 총 140km의 삼전강 자전거 국토종주길을 달렸다.

이번 인솔교사로 참여한 김종호 교사는 “무엇보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 모두가 이번 자전거 중주길을 안전하게 완주하게 되어 기쁘며, 이번 행사가 합평고 재학생들에게 참된 ‘나’를 찾고 더 큰 ‘나’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세범 기자 hsb@

# 배움이 즐거운 우리 교실을 함께 꿈꿔요!

## 강진도암초, 2017 광주교육대학교 농어촌·도서벽지 참관 실습

강진 도암초등학교(교장 김옥분)는 “2017. 광주교육대학교 농어촌 및 도서벽지 참관 실습”에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초등교육에 대한 체험실습으로써, 예비교사인 광주교육대학교 학생 2학년 12명이 22~26일 일주일간 도암초등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전남 농어촌 지역의 초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혔다.

도암초등학교 김지영 교사는 “현재 본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 실습생에게 농어촌 초등학교의 특징과 이점을 전하고자 했으며, 능력과 갖추고 역량도 지닌 교육 실습생들의 성장을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육대학교 2학년 임준희 실습생은 “소규모 학교로 학생 수가 적어 학생 개인에게 교사의 피드백이 주어지는 점이 기억에 남으며, 교육적으로 일관한 농촌지역이지만 도시의 학교에 비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공대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일주일간 따뜻한 교실에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윤바로 실습생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현재와 운영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각 학급에서 아이들의 자제 의지와 개성을 살린 교육활동이 즐겁게 이루어지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졸업 후 전남교육기공의 일원이 되어 이번 실습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꼭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옥분 교장은 “앞으로 전남 교육을 이끌어 나갈 예비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전남 농어촌 지역



초등교육의 이해를 돕고자 교육 실습에 함께 참여하게 됐으며,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적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고 교육 실습생을 위한 수업 체계, 교육과정 이해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수업 및 제공했고, 담임교사와의 1대 2 매칭으로 교실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협의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다”며, “본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의 예비교사로서 교육 실습생이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초등교육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기르고 미래 전남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자세와 의욕을 갖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국원 기자 edm@

#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

## 순천교육지원청, 2017년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식)은 5월 29일 오후 3시 순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63명을 대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이라는 주제로 장애학생 통합교육 지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의 강사는 교육부 김은숙 특수교육정책과장으로 장애학생 인권진화책 분위기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강조하면서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및 장애학생 지원 강화에 대한 특수교육의 최근 정책방향 및 관련 법령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달했다.

교육부는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및 장애학생 지원 강화 활동을 통해 통합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법·국립 장애인식 개선활동으로 전국 유·초·중·고 학생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통합교육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윤종식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을 위해 인권 친화적 분위기의 교육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해나가지”며 통합교육을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것을 당부했다.

최준원 기자 cjw@

# 장성서삼초, 심폐 소생술 교육

서삼초등학교(교장 신희상)는 지난 5월 29일(월) 도서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생명존중 교육과 더불어 뇌손상을 막을 수 있는 필드타임 4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의 방법 및 뇌에 뇌손상 강급되는 원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응급처치 방법,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이론교육을 비롯해 실습용 마네킹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심장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4-5분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시가지고 10분 이상 지나면 뇌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심정지 소생을 위해서는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제세동기 사용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학년 양원용 학생은 “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긴 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확실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런 체험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삼은 기자 ksw@



#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소통

## 광양양강초, 감성여행프로그램 ‘푸스체험’

광양양강초등학교(교장 우원철)는 5월 27-28일 1박 2일 일정으로 푸스(Feeling Up-Stress Off) 체험을 통한 가족 UCC 만들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푸스 체험은 강진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성여행 프로그램으로 학생, 학부모 모두 14가족 41명이 참여했다.

체험에 참여한 가족들은 오후라 관람 및 창작 전시품 새기기, 다산기념관을 둘러보고 강진의 명물, 출렁다리를 건너 가우도를 탐방했다. 이후, 가족별로 푸스 체험의 농가로 이동하여 가족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며 맛있는 시골 밥상 및 각 농가의 특산물 체험을 하며 훌륭한 농촌의 정서와 감성을 느끼고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체험활동을 대상으로 SNS를 개설하여 가족별로 체험하는 모습을 찍고 공유하여 가족별 UCC를 만드는 행사도 진행하여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동영상으로 남기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아빠 엄마와 함께 1박 2일 동안 맛있는 시골밥도 먹고 뽕소주는 해 볼 수 없는 농가체험이 너무 즐거웠다.”고 하였으며 1학년 아이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랑 놀아 줄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체험을 통하여 아이와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가족 UCC 만들기를 통해 자녀와 함께 한 소중한 추억을 더욱 오랫동안 간직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나타내며 다음 행사 때도 꼭 참여하겠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우원철 교장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향후 이번 푸스체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별로 제작한 가족UCC를 함께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소통방법을 익히고 긍정적인 관계형성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원 기자 cjw@

# 니주중, 은행권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 금융뮤지컬 공연 관람

니주중학교(교장 김부)는 지난 5월 28일 은행권과 함께 하는 뮤지컬 ‘유턴’ 공연이 있었다.

이 뮤지컬 공연은 cidthusefem의 흥미유 유 비스사 뜻 있는 뮤지컬을 통해 금융역량강화 및 자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뮤지컬 ‘유턴’은 현재와 과거를 왔다갔다 하며 웃음과 교훈을 주는 공연이었다.

주요 내용은 인생(진로)설계 금융설계,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티끌 모아 태산(지축의 뜻과 중요성) 및 합리적 소비와 생활 속 조심해야 할 금융사기! 다양한 직업소개와 진로탐색의 중요성 등을 담고 있다. 각기 다른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학교 같은 반 친구들의 이야기! 우연한 계기로 과거 중학교 교실로 돌아간 주인공 데빈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소중한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생활을 실천하고 꾸준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웃음과 감동이 있는 뮤지컬이다.

서순주 기자 sjs@

**(유) 하나로합정**

방역 (학부모회) / 건물 관리 / 자수료 협조

취업관리지원 (훈련/일부협조)

TEL : 10611324-5222 / H.P : 010-8888-2678

전남 합평고 학생회 명수집 100-1번지

FAX : 10611323-0036

E-mail : hsb5222@hanmail.net

**대 동 방 역**

방역 / 살균 / 살충

TEL : 10611324-2931 / H.P : 010-8514-8006

**KPCA**

**영업종목**

- 간이상수도청소
- 마물 잔여 소규모 급수 시설, 학교, 군부대 도시 지역, 편선 등
- 공간소독
- 하폐트 지하 주차장, 상가 주차장, 공장내부 작업 환경 등
- 무인자동살균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구내식당 등 집단 식용 예방

방역, 살균, 살충은 하나로방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기업